

[미국-뉴욕, 2013년 5월] [농식품]

1. 주재국 현장 이슈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ITC) 한미 FTA 영향분석 보고서 발표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ITC)에 요청한 한미 FTA 영향분석 보고서가 지난 5월 23일에 발표되었음

해당 보고서는 US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양국 간 FTA 이행이 미국 내 생산, 분배 및 중소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해당 무역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됨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 중소기업 중 일부는 관세 인하 및 할당량의 증가로 FTA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오레건주 유전자조작 밀 발견

지난 29일 미농무부는 오레건주의 밀밭에서 미승인된 유전자 조작 밀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그러나 해당 밀이 식용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전제한 뒤, 아직 시장에 판매되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유전자 조작(GMO) 작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음

유전자 조작 밀의 경우는 미국내에서도 경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이 다른 곳에도 재배되지는 않았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정부는 이번 발견이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의 대외 무역 이미지 타격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은 유전자 조작 밀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밀의 수입을 중단했음

▶ 미국,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회복으로 소고기 가격 급등

광우병 위험 무시국(BSE)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초이스급 소고기의 경우 지난 23일 도매가격이 파운드당 2달러11.37센트로 소고기값이 급등했던 2003년 당시의 기록을 초과함

소고기값 인상은 지난 2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지속적으로 사료비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등 해외로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 유통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보고 있음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3월말까지의 미국 전체 농수산식품 수입액은 US33,832백만불로 전년(33,296) 동기대비 2% 증가

□ 신선배

- 3월말 현재까지 미국내 수입은 28백만불로 아르헨티나산 배가 18백만불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산 배가 5.4백만불, 914%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이어 최근 4.9백만불로 대미수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칠레산 배가 차지했음. 한국산 배는 2.9백만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하는 추세임. 무엇보다 확대되고 있는 미국내 유기농 시장의 흐름에 맞춰 아르헨티나와 칠레 순으로 3.3백만불 어치의 유기농 배가 수입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신선버섯

- 미국내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으며 미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캐나다산의 수입액은 27백만불로 전년 대비 2%가량 증가했음. 뒤이어 멕시코산 버섯이 2.1백만불, 중국산 버섯이 1.2백만불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음. 반면에 한국산 신선버섯의 수입은 69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함.

□ 굴

- 지난 3월 대미 굴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한국산 굴이 11.6만불을 기록하며 올해 첫 수출 데이터가 확인되었음. 전년 동기(1-3월 기준)에 1.3백만불 수출액을 기록했던 것에 91% 가량 감소한 액수임. 현재 중국산 굴이 6.9백만불, 캐나다 3.5백만불, 멕시코 65만불 순으로 미국내 굴이 수입되고 있으며 전체 굴 수입액은 11.9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함.

□ 커피(인스턴트)

- 지난달에 이어 로스팅되거나 인스턴트 커피류의 수입이 줄고 있으며 로스팅 커피의 주요 수입국인 콜롬비아와 멕시코, 브라질산의 커피가 적게는 14%부터 많게는 27%까지 감소함. 한국산 커피 또한 27%나 감소한 반면에 지난해에 비해 적게 감소한 캐나다산 커피가 88백만불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입량을 보이고 있음.

□ 소스류

- 국가별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멕시코산이 수입액이 20% 증가했으며 태국산 소스 또한 소폭 상승했음. 한국산 소스는 지난 3월을 기점으로 2.5백만불을 돌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의 성장세를 보였음. 캐나다산 소스의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멕시코와 큰 차이가 없는 19백만불을 기록하며 최대 수입국임.

□ 종자류

- 여러 품목중에서 종자류는 미국내 수입하는 농식품 카테고리 중에서 눈에 띄는 품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의 수입액 증가율을 기록함. 아르헨티나가 122백만불을 기록하며 지난해 총수입액 73백만불을 크게 초과했음. 또한 지난 달에 이어 호주가 12백만불을 돌파하며 1,41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며 한국산 종자류는 1% 소폭 감소함.

<주요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 천 달러, %)

품목	2012년 3월	2013년 3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한국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농식품 전체	33,295,974	33,831,929	2	캐나다	7,550,515	멕시코	5,135,686	중국	2,412,287	124,041
신선배	20,414	31,904	56	아르헨티나	18,470	중국	5,367	칠레	5,016	2,878
신선버섯	30,271	32,173	6	캐나다	27,077	멕시코	2,133	중국	1,831	687
굴	11,126	11,941	7	중국	6,993	캐나다	3,508	멕시코	650	115
국수	53,154	54,716	3	캐나다	13,157	중국	11,212	멕시코	9,192	3,573
리면	16,480	20,422	24	한국	6,714	태국	4,217	중국	3,976	6,714
소스류(장류)	76,666	82,021	7	멕시코	20,626	캐나다	19,839	태국	7,353	2,530
간장	16,040	17,550	9	중국	5,149	홍콩	4,461	일본	2,264	894
커피조제품	317,777	275,700	△13	캐나다	88,963	멕시코	34,393	브라질	31,516	1,163
종자류	392,384	493,816	26	아르헨티나	121,515	캐나다	112,626	칠레	83,737	1,881

자료원 :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수출입통계 자료 (3월 기준 자료)

3.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신선배

-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중국산 배가 중국마켓과 일부 교포마켓에 판매가 시작됐음. 외형은 한국산 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랜기간 보관되었던 상품으로 당도나 과즙, 향 등이 한국산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가격은 3개에 \$9.99로 판매되고 있음. 현지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배는 마진율이 좋아 마켓 테스트용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품질이 향상된다면 한국산 배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 굴

- 지난달부터 미동부 지역 마켓에 한국산 냉동굴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누구보다 레스토랑 관계자들이 한국산 냉동굴 수입재개를 반기고 있다고 함. 현재 소수 마켓에서만 한국산 냉동굴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마켓에서 다량으로 한국산 냉동굴을 구입해가는 사례가 보고됨. 수입금지 기간동안 굴요리를 판매했던 대다수 레스토랑에서는 현지산 생굴을 이용하거나 해당 메뉴의 판매를 중지해 왔었음.

□ 김치

-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치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보편적으로 '너무 맵거나 짜다'는 반응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액젓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기도 함. 김치를 주식으로 먹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소포장 패키지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지 유기농 마켓 매니저에 따르면 초기 김치 판매 당시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았으나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구매도 늘어 디스플레이 위치도 판매에 유리한 위치로 옮겨놓고 있는 추세라고 함.

□ 과자류

- 교포마켓에는 한국산 과자류의 판매가 교포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급 스낵이라는 인식이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현지마켓에는 한국산 과자의 판매가 저조하며 쌀과자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글루텐 프리 식품이 강세를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과자류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지 소비자들은 화학적 첨가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스낵 하나를 고를 때에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음. 현지 마켓 담당자에 따르면 쌀과자의 경우, 바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건강 스낵을 찾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함.

□ 멸치

-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산 멸치의 경우,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 및 검역 기준에 맞춘 소량의 제품들만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교포마켓 담당자에 따르면 과거보다 패키지와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수입업체들도 시장 가능성이 높은 견여물로 보고 있다고 전함. 소비자들 또한 멸치의 내장을 제거한 만큼 국물을 우려낼 때 보다 담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4. 동향 분석 [배]

□ 생산동향

- 대부분의 미국산 배는 주로 서북쪽 워싱턴주에서 생산되고 있음. 미국의 11년도 배 총생산 물량은 94만톤, 금액은 3.87억 달러에 달했으며 12년도에는 87.9만톤으로 전년 대비 8% 가량 하락함. 12년도 미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바틀렛(Bartlett) 배는 40.8만톤에 달함. 그리고 USDA의 08년 유기농 배 생산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57곳의 유기농 농장과 2.1만톤의 유기농 배를 생산했으며 총 16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음.

미국내에서 수확되는 배의 약 60%가 신선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40%는 통조림 형태로 처리되고 있음

□ 소비동향

- Fresh Trends 2012에 따르면 배를 구매한 소비자 중 39%가 12개월 내에 배를 재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품종인 바틀렛, 아시안, 안주, 보스크는 42%, 20%, 16%, 11% 순으로 구매 선호도가 나뉘었음
- 배를 구매한 소비자들 중 복수응답한 소비 형태로는 스낵용이 86%로 디저트용 35%보다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샐러드용(27%), 요리법에 따른 사용(24%) 순으로 확인되었음
- 소비자들이 구매한 배는 유기농 제품이 17%이며 71%가 일반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층에 상관없이 구매층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동향

<'12년 미국 배 수입통계>

(단위 : 천 달러)

품목	국가	총수입액
	수입 총액	
일반배	한국	23,518
	아르헨티나	25,638
	칠레	12,259
	중국	4,987
	뉴질랜드	2,306
	남아프리카 공화국	502
	유기농배	아르헨티나
	칠레	29
	카메룬	8

자료원 :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Statistics

- 미국은 생산된 배(주로 바틀렛종)를 자국에서 소비하기 보다는 해외로 수출하는 편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멕시코, 캐나다이며 12년도 한국은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대미 배수출량이 많은 국가중 하나로서 미국내 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시안 품종(신고, 원황) 위주로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월 중국산 동양배에 대한 미국의 검역상 수입허용조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소량의 중국산 아시안 배가 미국 현지 마켓에 판매되기 시작됐으며 올해 본격적인 배시장은 저가 중국산 아시안배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유통현황

- 현지산: 현재 현지에서 유통되는 배는 크게 네 가지로 바틀렛(Bartlett), 양쥬(Anjou), 보스크(BOSC), 아시안(Asian) 종이며 아시안 배는 사과를 닮아 현지에서 '사과배'로 불리기도 함. 그러나 대부분 바틀렛, 양쥬, 보스크 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수의 현지마켓에서 아시안 배가 판매중임. 판매되는 아시안 배는 대부분 칠레산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한국산: 미국현지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한국산 배의 품종은 신고배, 원황배 두종이며 주로 교포마켓과 중국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 중국인을 포함하여 고소득층 아시아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한국산 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는 않음.

< 미국내 배 판매현황 >

판매처	상품사진	가격	특징
<p>H마트 (한국산)</p>		<p>10과 (5kg) \$28.99</p> <p>3과 \$10.99</p>	<p><원황배></p> <p>뉴욕, 뉴저지 일원의 교포마켓에는 지난 4월 말까지 대부분의 한국산 배가 소진된 상태로 극히 일부 마켓에서 저장해놓은 배를 팔고 있음</p> <p>종종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배 시즌이 지난만큼 대량 판매되고 있지는 않음</p>
<p>H마트 (중국산)</p>		<p>3과 \$9.99</p>	<p><신고배></p> <p>모든 교포마켓에 납품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산 신고배가 마켓 테스트용으로 소량 판매중임. 현재까지 중국산 신고배가 신뢰도가 낮고 생소하여 구매를 피하거나 한국산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음</p> <p>외형은 한국산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는 없으나 껍질이 두껍고 장기간 보관된 제품으로 신선도가 떨어졌음</p>

<p>Stop& Shop (현지 캘리포니아산)</p>		<p>\$1.49/lb</p>	<p><양주></p> <p>기본적으로 풋사과와 같은 열은 녹색을 띄고 있으며 맛은 살짝 신맛, 뽕은 맛, 단맛이 나는 편임</p> <p>식감은 다른 배들보다 단단한 편이며 개운한 맛을 띄고 있고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품종 중 하나임</p>
<p>Whole Foods (아르헨티나산)</p>		<p>\$2.99/lb</p>	<p><패캠></p> <p>바틀렛종과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거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농 생산품이 많은 품종임</p>
<p>Waldbaums (칠레산)</p>		<p>개당 \$2.99</p>	<p><아시아></p> <p>현지 마켓에서는 아시아 품종의 판매는 적지만 판매되더라도 대부분 칠레산임</p> <p>칠레산 아시아 배는 한국산에 비해 크기가 작고 외부가 무른 편이며 식감은 유사하나 당도는 높지 않은 편임</p>

□ 한국산 수입 증가사유

- 한국산 배의 품질이 향상되어 마켓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또한 올해 시장에서 경합했던 현지산 아시안 배의 품질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매출이 향상되었음
- 무엇보다 거친 식감의 한국산 배에 호감을 느낀 현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구매로 이어지는 추세임

□ 시사점

- 올해 본격적인 배 시즌을 기점으로 수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던 업체들이 최근 중국산 아시안 배의 수입 허용으로 한국산 배의 수입량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마켓 테스트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배에 대한 시장 관계자들은 외형은 한국산 배와 유사하나 맛은 ‘무(無)맛’이라는 평을 했지만 장기간 보관되었던 제품인 만큼 향후 올해 생산된 중국산 햇배를 대상으로 다시 샘플링을 해볼 필요가 있음
- 중국산 아시안 배의 미국 시장 진출로 올해 시장에 진입하는 중국산 배의 품질과 가격이 향후 한국산 아시안 배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산 배의 현지 동향도 주시해야함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